



2014년 9월 29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KIS WEEKLY STRATEGY

Reality Check : 금리와 딸꾹질

• 크레딧분석

카드사 신용등급은 오버밸류되었는가?

• 계량분석

2014년 순이익 전월 대비 3.8% 하향

• 이머징마켓 동향

정치불안 확대 및 해외자금 유출로 인니 급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태광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생활건강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오리온,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19(금)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3.82	2,039.27	2,028.91	2,035.64	2,034.11	2,031.64	
	등락폭	6.08	-14.55	-10.36	6.73	-1.53	-2.47	
	등락종목	상승(상한)	531(4)	306(3)	299(4)	501(6)	357(4)	305(2)
		하락(하한)	269(0)	495(2)	508(1)	308(0)	452(2)	499(0)
	ADR	99.98	98.93	98.65	99.40	97.85	93.25	
	이격도	10 일	100.30	99.65	99.28	99.68	99.60	99.53
		20 일	99.90	99.27	98.81	99.19	99.18	99.14
	투자심리	50	50	4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98	324	428	333	325	306	
	거래대금 (십억 원)	5,083	3,546	4,684	4,454	4,767	3,770	
코스닥	코스닥지수	581.38	577.35	575.56	580.42	577.48	577.66	
	등락폭	4.41	-4.03	-1.79	4.86	-2.94	0.18	
	등락종목	상승(상한)	531(7)	306(7)	299(3)	501(9)	357(6)	418(11)
		하락(하한)	269(0)	495(0)	508(0)	308(1)	452(5)	510(1)
	ADR	96.80	95.16	92.95	93.16	94.47	92.45	
	이격도	10 일	101.49	100.68	100.25	100.96	100.38	100.29
		20 일	102.04	101.19	100.77	101.49	100.86	100.81
	투자심리	50	50	4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74	385	370	370	434	393	
	거래대금 (십억 원)	2,249	2,248	2,525	2,324	2,649	2,236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39.1	992.4	914.7	160.4	138.8	260.9	67.7	44.1	242.915	46.8
	매도	1,834.7	1,026.7	881.3	163.3	124.8	203.6	58.7	36.8	294.0	50.2
	순매수	4.4	-34.3	33.4	-3.0	14.0	57.3	8.9	7.3	-51.1	-3.5
	9월 누계	773.8	-878.9	169.7	-72.0	-80.6	492.0	-16.6	-360.8	207.7	-64.6
	14년 누계	-159.9	7,249.5	-5,736.4	-3,172.0	605.3	-3,156.8	-484.1	-1,993.3	2,464.5	-1,353.3
	코스닥	매수	1,997.3	131.9	118.3	24.6	11.0	39.7	7.7	5.3	30.0
매도		2,010.8	109.1	125.1	25.7	15.5	30.4	15.3	3.8	34.4	18.4
순매수		-13.5	22.7	-6.8	-1.1	-4.5	9.2	-7.6	1.5	-4.3	-2.4
9월 누계		-0.4	46.5	1.4	-17.4	-5.6	110.4	-2.9	-5.6	-77.5	-47.5
14년 누계		349.2	752.5	-128.8	-5.2	140.7	-294.1	-68.4	-40.0	143.2	-972.9

## Reality Check : 금리와 딸꾹질

2014년 Target KOSPI	2,150pt
12MF PER	10.21배
12MF PBR	0.98배
Yield Gap	7.5%P

- ▶ 연준의 QE3 종료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겠으나 급격한 sell-off는 발생하지 않을 것
- ▶ Key Indicators : 엔/달러 환율, 금값, 하이일드 채권펀드, 기대 인플레이션 등
- ▶ 투자전략 : 내수 관련 Theme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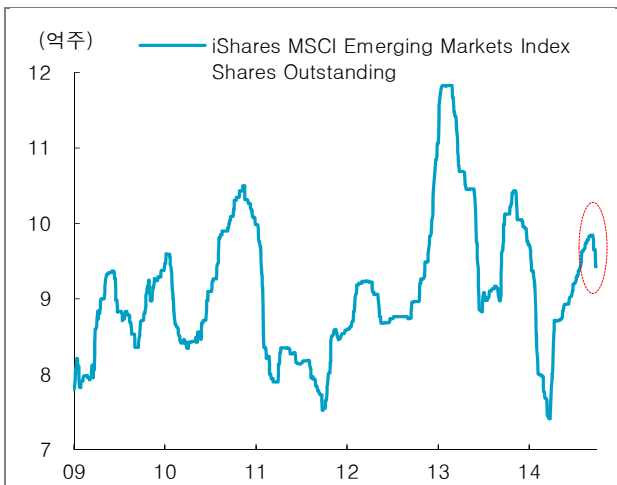
### ■ Reality Check : 딸꾹질

10월 FOMC에서 연준의 채권 매입이 완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DXY)가 박스권 상단인 85달러를 상향 돌파했고 엔/달러 환율은 110엔을 가뿐히 넘어설 기세다. 반면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호주 달러 등 위험 통화 약세는 심화되고 있으며 원자재 약세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도 QE1, QE2 종료 전후로 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와 변동성(VIX) 지수 상승이 관찰됐다. 10월 말까지 시장의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 매과 인사들의 퇴임으로 연준 내 비둘기파 입지가 강화되고 2) 세계 경제가 빠른 금리 상승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작년 5월 같은 급격한 sell-off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색깔이다. 당분간은 달러의 약세 반전, 정크본드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 Key Indicator의 반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수 관련 Theme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위례, 반포 등 소위 '청약 광풍'으로 2기 경제팀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신흥시장 ETF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지만, 한국 ETF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다.

[그림 1] 신흥시장 ETF에서는 자금이탈이 지속되나



자료: Bloomberg

[그림 2] 한국 ETF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



자료: Bloomberg

[그림 3] 국고채 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4]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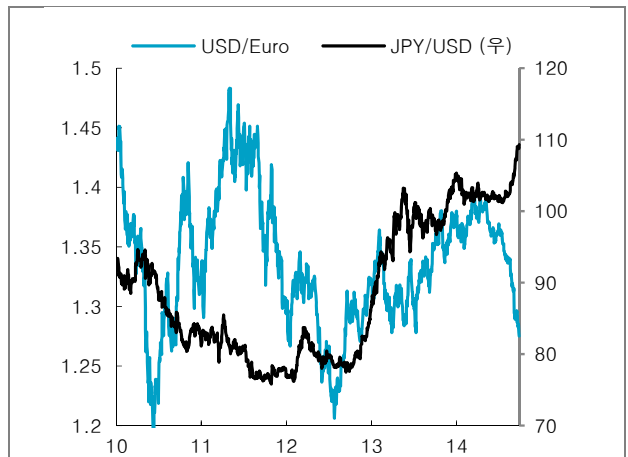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5] 달러 인덱스 : 박스권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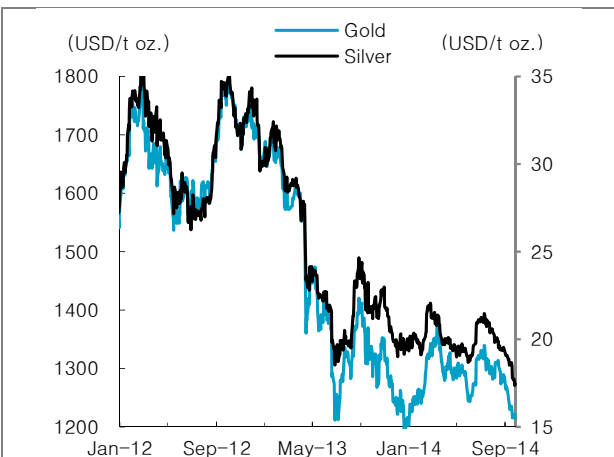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6] 엔/달러, 달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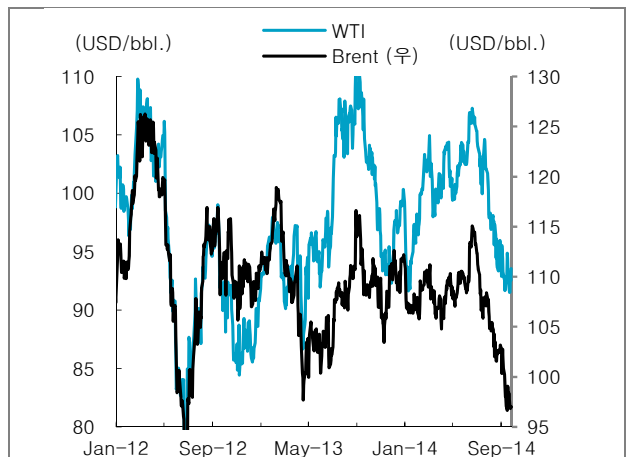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7] 금, 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8] WTI, 브렌트유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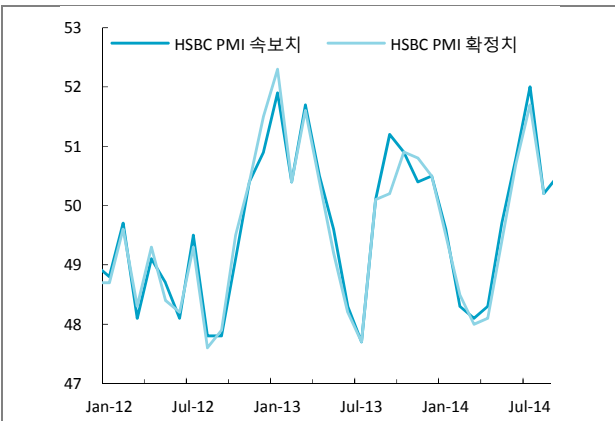
**Reality check #1 :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기**

23일 발표된 9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예비치는 50.5로 50.2였던 전월 수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 부진한 지표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상해종합지수는 발표 직후 반등세로 돌아섰다. 또한 인민은행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과 10월부터 실시되는 후강통으로 인한 기대감에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하지만 경제지표로 본 중국 경제는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 70대 도시 중 68개 도시의 신축 주거 건물 가격에서 전월대비 하락세가 관찰됐다. 6월 55개, 7월 64개 도시에서 하락세가 관찰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경기 둔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제조업 관련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이후 수출, 수입 모두 전년비 상승률이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8월 수입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 광공업생산은 6.9%로 급락하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위 '리커창 지수'라고 불리는 철도수송량과 전력소비량 모두 전년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그림 9] 중국 HSBC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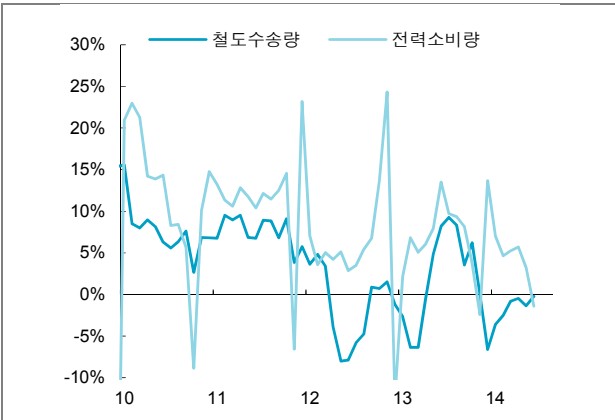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0] 중국 광공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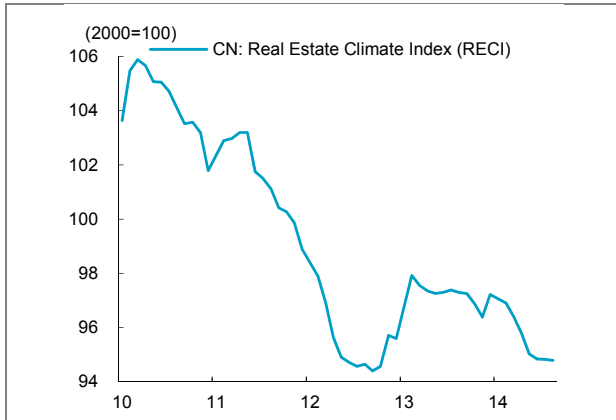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1] 철도수송량 및 전력소비량 YoY 변화**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중국 부동산 경기지수**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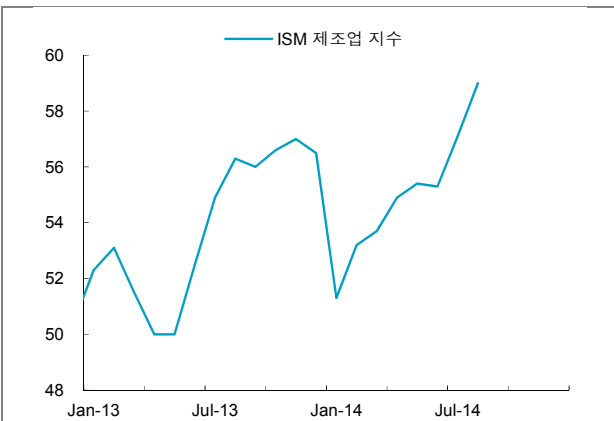
**Reality check #2 : 느리게 회복하고 있는 미국 경기**

연준에게 있어 견조한 경기 회복은 양날의 검과 같다. 경기 회복 자체가 통화정책의 목표이지만 목표 달성 이후 정책 강도가 약해진다면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되돌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경기의 추세적 회복세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강도가 아직 미약하다는 점에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지표를 통해 보는 미국 경기는 느리게나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은 4.6%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개선세를 보여 시장에 안도감을 실어주었다. 8월 실업률이 6.1%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환경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ISM 제조업지수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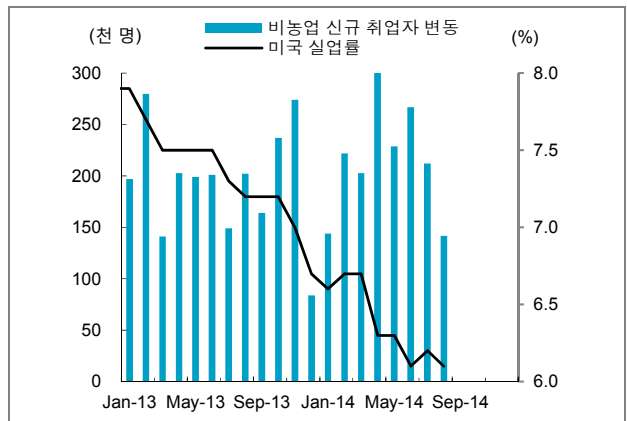
다만 모든 지표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 이후 연준의 목표치인 2.0%를 하회하고 있다. 8월 내구재 주문의 경우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의심을 거두기엔 충분하지 못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헷지 채권에서의 자금 이탈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해 시장이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3] 미국 ISM 제조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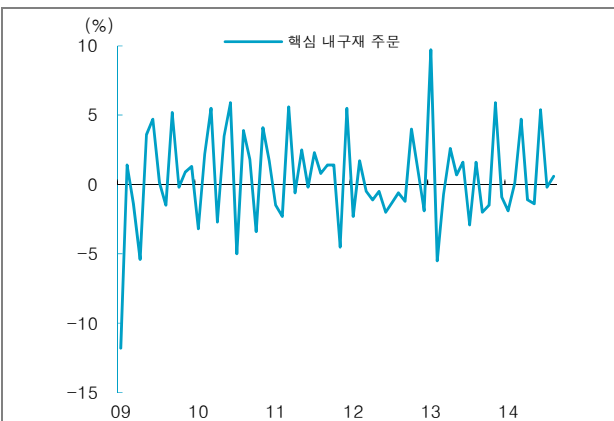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4]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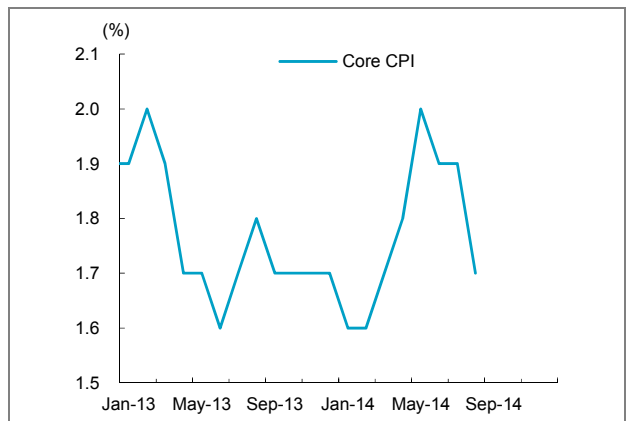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5] 핵심 내구재 주문



자료: US Census Bureau

[그림 16]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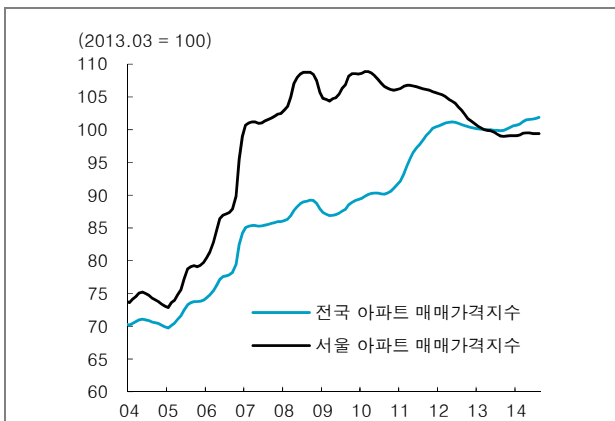
Reality check #3 : 내수 관련 Theme에 주목할 것

현재 대외적 변수는 한국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달러 강세/엔약세 기조는 수출주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한국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대외 변수보다 대내적 변수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2기 경제팀의 경제 부양 정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다. 정부는 그동안 ‘7.24 경제정책방향’과 ‘9.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매수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그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매매 가격 비율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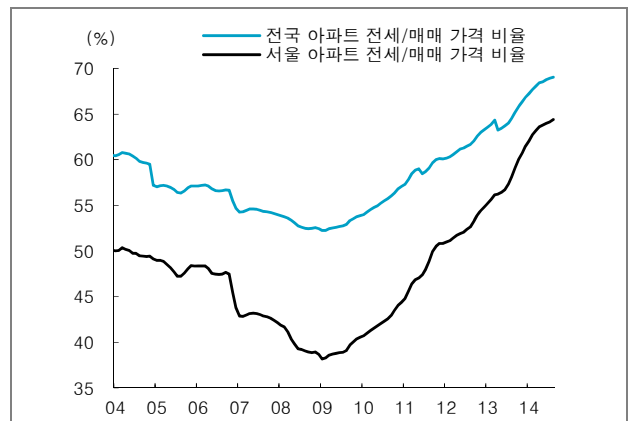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백화점/할인마트 매출 역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백화점 의류 매출의 경우 전년대비 5.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사 의류 담당 나은채 애널리스트는 “내수 의류 소비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9월은 8월보다 증가폭은 축소되었지만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7]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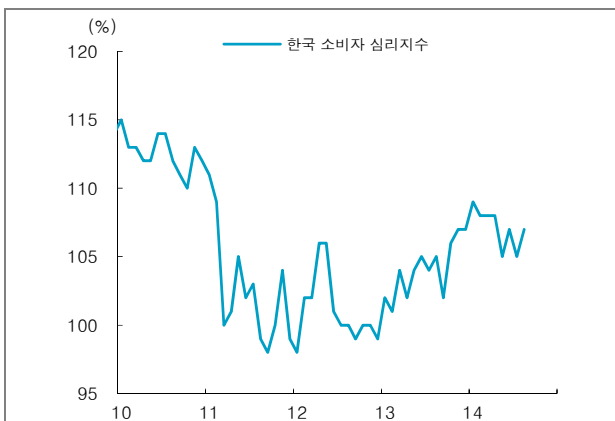
자료: KB부동산

[그림 18] 아파트 전세 가격/매매 가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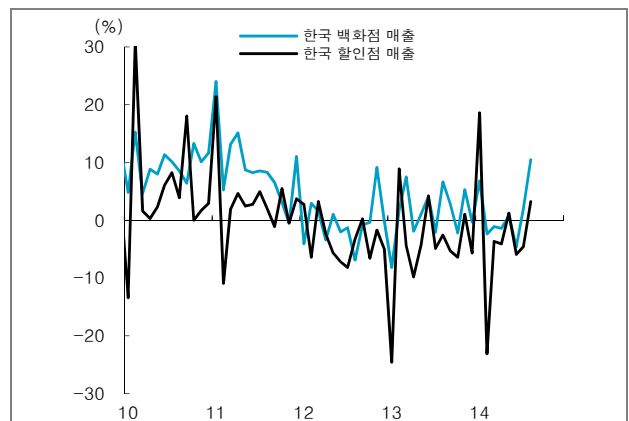
자료: KB부동산

[그림 19]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백화점/ 할인마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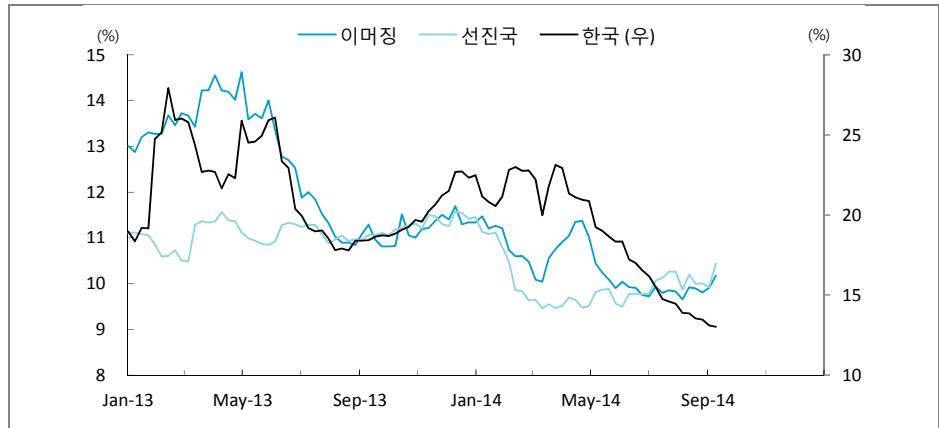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ality check #4: 하락하는 이익추정치

한국의 전년대비 선행 EPS 변화율은 이머징/선진국과는 달리 지속 하락 조정되고 있다. 전월비 기업 이익 추정치 변화율은 한국, 신흥시장, 선진시장 모두 최근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시장별로 업종의 이익추정치 변화는 상이했지만 최근 소폭이나마 금융 섹터와 통신서비스의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공통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림 21] 한국/이머징/선진국 12개월 선행 EPS YoY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표 1> 한국의 이익추정치 변화 추이

	전체 지수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05월	-1.77	-11.19	-5.23	-7.54	-0.81	-0.69	-0.24	-2.28	0.20	-17.75	-0.89
06월	-1.67	-2.95	-3.19	-6.97	-0.58	0.34	-0.08	-0.97	-1.10	-14.23	-2.78
07월	-2.36	-9.52	-2.18	-1.35	-0.28	0.42	0.04	-1.15	-3.90	-3.22	-1.91
08월	-4.43	-18.37	-3.41	-6.60	-3.29	-0.81	-0.79	0.00	-6.01	-6.82	-0.12
09월	-1.56	-4.92	-1.03	-1.57	-0.46	1.42	-0.02	1.08	-3.47	-2.47	4.22
10월	-2.96	-3.38	-1.36	-1.07	-0.52	-0.21	0.03	0.55	-6.96	0.21	8.37

주: MSCI Korea Index 기준  
자료: Thomson IBES

<표 2> 이머징 시장의 이익추정치 변화 추이

	전체 지수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05월	-0.65	-1.87	-2.66	-3.76	-0.02	-0.48	-0.26	-0.48	1.55	-0.83	-0.22
06월	-0.56	-0.62	-1.72	-3.94	-0.56	-0.73	-0.15	-0.68	0.74	-2.27	0.41
07월	-0.67	0.20	-1.71	-0.67	-0.34	-0.44	-0.38	0.09	-1.74	-1.84	0.49
08월	-0.68	1.32	-4.23	-2.62	-1.74	-0.59	-0.05	0.31	-1.50	-0.23	-0.02
09월	-0.49	-0.67	-2.20	-1.53	-0.36	-0.97	0.03	0.41	-1.17	1.69	0.34
10월	-0.99	-1.34	-2.67	0.29	-0.74	-1.57	-0.15	0.50	-3.10	0.75	0.97

주: MSCI Emerging Market Index 기준  
자료: Thomson IBES

<표 3> 선진국 시장의 이익추정치 변화 추이

	전체 지수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05월	-0.17	0.42	-0.56	-0.10	-0.70	-0.75	1.17	-0.75	0.41	-0.19	-0.02
06월	-0.29	0.79	-0.27	-0.38	-0.67	-0.62	-0.17	-0.42	0.31	-2.41	-0.67
07월	-0.16	0.17	-0.92	-0.17	-0.56	-0.16	0.01	-0.26	0.55	0.49	-1.51
08월	-0.12	0.66	-0.94	-0.21	-1.00	-0.17	1.16	-0.39	0.08	-0.46	-0.03
09월	-0.27	-0.76	-0.36	-0.38	-0.46	-0.62	-0.00	0.05	-0.09	-0.32	-0.35
10월	-0.18	-0.79	-0.71	-0.09	-0.44	-0.60	-0.03	0.11	0.32	0.06	-0.25

주: MSCI Developed Market Index 기준  
자료: Thomson IBES

<표> 이번 주 주요 일정

29(월)	30(화)	10/1(수)	2(목)	3(금)
韓> 8월 경상수지(달러) (n/a, n/a, 79억)	韓> Powell 연준이사 연설 8월 산업생산 SA MoM (n/a, 0.1%, 1.1%)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5%, 1.4%) 9월 HSBC 제조업 PMI (n/a, n/a, 50.3)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8월 제조업수주 (n/a, -9.0%, 10.5%)	美> 9월 신규비농업일자리 (n/a, 21.0만, 14.2만) 9월 실업률 (n/a, 6.1%, 6.1%) 8월 무역수지 (달러) (n/a, -407억, -405억)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8월 미결주택매매 (n/a, -0.5%, 3.3%)	美> 7월 케이스실러지수 YoY (n/a, 7.40%, 8.07%) 9월 시카고 구매자협회지수 (n/a, 61.5, 64.3) 9월 소비자기대지수 (n/a, 92.4, 92.4)	9월 수출 YoY (n/a, 6.7%, -0.2%) 9월 수입 YoY (n/a, 6.0%, 3.1%)	유럽> ECB 금리 결정 (n/a, 0.050%, 0.050%)	유럽> 8월 소매판매 MoM (n/a, n/a, -0.4%)
	유럽> 9월 CPI YoY (n/a, 0.3%, 0.4%)	中> 9월 관방 제조업 PMI (n/a, 51.0, 51.1)		
	美> 9월 ADP 취업자 변동 (n/a, 20.4만, 20.4만) 9월 ISM 제조업지수 (n/a, 58.5, 59.0)	中> 9월 HSBC 제조업 PMI (n/a, 50.5, 50.5)		
	日> 8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0.2%, 0.4%)			
	실적발표> 美 월그린			

정리: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 전주대비 1% 하락.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달러 강세 강화되며 신흥시장 전반 외국인 매도. 9월 중국 HSBC 제조업 PMI가 전월비 소폭 상승했으나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했음. 전기가스(+3.1%), 음식료(+2.3%), 의약품(+1.4%) 등 방어적 업종 선전. 통신(-1.2%)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으로 약세.

삼성전자(-2.1%)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9조원까지 내려가며 급락했으나 애플 아이폰6 결합 소식에 낙폭 축소. 현대차(-4.1%)는 엔화 약세 우려 겹치며 추가 하락. 반면 대형주 모멘텀 약화로 중소형주 강세 지속. SK C&C(+13.4%), 컴투스(+17.0%), 아모레퍼시픽(+1.7%) 등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 동아쏘시오홀딩스(+18.3%), 녹십자(+4.0%) 등 제약주 강세도 꾸준. 한편 국고채 금리는 한은 기준 금리 인하 기대 지속되며 하락세 강화. 국고 10년물은 16개월만에 다시 3%선 하회. 원/달러 환율은 전주와 비슷한 1,044.4원에 마감.

지난 주는 유틸리티(한국전력), 증권(한국금융지주),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의류(영원무역), 화장품(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의 실적 추정치 향상이 두드러짐. 반면 정유(SK이노베이션, S-Oil), IT(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는 하향 조정.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2.44	-1.78	-25.21	-2.11	2.86	11.29	0.65
소재	-3.45	-2.57	-4.19	-0.16	-0.02	12.49	0.84
화학	-1.84	-2.01	-12.82	-0.49	0.31	12.93	1.12
금속 및 광물	-4.90	-3.24	2.47	0.09	-0.88	12.20	0.71
산업재	0.30	2.17	-2.31	-0.81	2.89	16.08	1.03
자본재	0.12	2.40	-5.92	-0.91	2.88	14.38	0.90
건설	-0.53	2.75	16.27	-0.03	1.70	14.06	1.01
조선	-3.29	1.60	-40.12	-1.63	9.40	23.91	0.67
상업서비스	1.03	3.94	6.28	-1.16	0.21	21.74	2.25
운송	1.10	-0.25	25.73	0.18	4.50	27.22	1.75
경기소비재	-1.37	-6.78	-4.72	-0.11	0.60	8.58	1.07
자동차/부품	-2.32	-10.30	-11.23	-0.06	1.19	6.61	0.91
내구소비재/의류	2.35	3.59	40.10	0.34	2.19	18.48	2.70
소비자 서비스	0.25	-5.39	26.24	-0.31	1.32	18.95	2.61
미디어	-4.30	1.00	-4.70	-0.12	-2.11	17.75	1.81
유통	0.46	-0.22	-12.20	-0.57	-3.23	11.98	0.84
필수소비재	1.75	-0.03	34.98	0.09	0.59	22.24	2.27
음식료/담배	1.88	0.91	26.31	0.08	0.27	18.56	1.69
생활용품	1.50	-1.79	55.52	0.12	1.40	31.20	4.40
의료	2.94	7.86	17.54	-0.36	4.30	20.81	2.56
제약/바이오	3.09	8.39	15.79	-0.85	0.69	21.24	2.45
금융	-0.78	-0.54	5.37	-0.03	-0.08	11.49	0.77
은행	-0.63	-0.94	2.10	-0.15	-0.67	9.56	0.65
기타금융	-3.95	1.71	28.70	0.00	0.00	19.05	
증권	1.91	5.78	28.28	0.70	3.12	17.46	0.85
보험	-2.06	-1.99	2.72	0.00	0.06	13.19	1.00
IT	-2.05	-3.74	-6.08	-5.00	-10.44	10.38	1.25
소프트웨어	3.31	5.05	15.33	-0.29	5.03	25.31	4.19
하드웨어	-4.63	-5.81	-16.00	-6.72	-14.86	9.21	1.06
반도체	3.18	-5.00	21.21	-0.21	0.33	8.86	1.67
디스플레이	-0.37	-2.80	5.93	0.46	3.39	11.69	1.03
통신서비스	0.68	5.84	18.51	0.35	7.38	14.51	1.11
유틸리티	1.76	10.11	26.67	46.29	47.90	7.70	0.58

주 : MKF500 업종 분류 기준, 전주 목요일 종가 기준 업데이트

자료 : Fnguide,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폭탄맞은 한 주였다.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69개 업종은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그나마 낙폭이 적었던 업종이 바이오(-0.16%), 섬유/의류(-0.23%), 조선(-0.53%), 복합기계(-0.53%), 엔터테인먼트(-0.56%) 등이었다. 항공(-5.1%), 파이프라인(-4.5%), 트럭/리스(-3.9%), 철강(-3.9%) 등 주로 경기민감 업종이 많이 빠졌다.

낙폭이 거셴 업종이 경기민감주, 특히 미국의 경기민감주라 눈길이 간다. 지난 주 발표된 미국 8월 내구재 주문의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으나 신규 차량과 트럭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핵심 자본재 주문은 전월비 0.6% 늘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에서는 의심하는 눈치다. 항공 및 기계업종 대장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2012년 이후 미국 경기가 본격 회복하면서 CAPEX와 관련된 기계류와 운송주들이 큰 폭 상승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델타 에어라인(항공)과 커민스(엔진기계) 등이었다. 그런데 동 업종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커민스의 경우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였다.

어찌보면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빠른 경기회복=빠른 금리상승’을 부정하는 근거였으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여주었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증거일 가능성도 있다. 당분간 동 기업들의 주가 탄력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바이오	-0.16	항공	-5.06
섬유/소재	-0.23	파이프라인	-4.47
조선	-0.53	식품서비스	-4.21
복합기계	-0.56	트럭/리스	-3.94
엔터테인먼트	-0.58	철강	-3.93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델타 항공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커민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주식형 펀드의 경우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은 17.9억 달러가 유입됐으나 신흥국 (Asia ex-Japan, GEM)은 8.4억 달러가 빠져나가 유출 기조 지속. 채권형의 경우 미국/글로벌 채권형 펀드 전체적으로 순유입 추세가 유지됐으나 하이일드 채권 펀드에서는 자금이 지속 이탈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 여전.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4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1,946,908	1.7%	1,747.9	9,371	69,184
	Pacific	48,721	6.5%	46.9	233	-1,842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55,844	17.1%	509.3	929	123
	Global Emerging	493,194	12.8%	-1,348.5	964	4,865
	Latin America	37,694	-	111.7	532	-3,873
	Europe/Middle East/Africa	927,818	-	110.0	-8	-3,044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4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297,576	3,755	2,607	134,820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60,491	318	657	798
	- EM 경화(\$) 채권	110,115	-43	-56	1,854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05,495	201	10	-6,443
	- EM Blend 통화 채권	44,880	160	703	5,386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089,865	396	3,608	61,339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69,305	-179	-5,372	-1,742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477,940	1,813	7,515	73,133
	- Municipal	350,312	626	2,098	6,871
	- Floating Rate	116,720	-384	-1,647	-2,647
	- Inflation Protected	51,461	-135	52	-236
	- Inter. Term Corp.	21,026	143	206	3,488
	- Inter. Term Funds	332,263	229	-518	12,111
	- Inter. Term Gov.	25,380	-52	-75	684
	- LT Bond	5,870	15	246	430
	- LT Corp.	28,238	-113	160	3,194
	- LT Gov.	15,064	136	1,966	6,023
	- MBS	68,154	89	762	1,615
	- ST Bond	203,096	314	1,232	15,525
	- ST Corp.	30,784	84	87	2,644
	- ST Gov.	35,277	-223	-1,279	-1,244
	- Total Return	194,294	1,086	4,227	24,677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358,469	23,117	2,727	-6,785
	- MMF 채권펀드	3,590,950	20,754	-3,800	-47,524
	- Balanced Funds	767,519	2,363	6,527	40,739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카드사 신용등급은 오버밸류되었는가?

### ■ 카드사 신용등급이 오버밸류됐다는 인식에 대한 검토 필요

신용카드사의 신용등급이 오버밸류됐다는 인식은 오랜 기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일단, 시장은 2003년 카드대란의 트라우마로 카드사의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주로 채권발행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금융시장 경색 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카드사 신용등급이 AA급에 집중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곤 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카드채 금리는 동일 신용등급 제조업체 회사채에 비해 일정 수준 높게 형성되어 왔다.

### ■ 카드사 펀더멘탈, 유사업권 금융회사 비교 시 상대적 우위, 적정등급으로 판단

카드사 수익성은 2008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위기 이후 금융권 전반의 공통적인 수익성 저하 현상으로 금융업종 내 타업권과 비교 시 가장 우수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의 커버리지비율이 금융업종 중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익의 질 또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재 신환 위주의 사업구조는 수익성보다는 건전성 제고 위주 전략의 결과로 2003년과 같은 카드대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따라서 현재 신용카드사 신용등급은 오버밸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적정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 카드사간 투자선호 순위 판단의 핵심지표는 시장지위

신용카드사들의 사업구조 및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부실 대응 완충능력 등은 큰 차이 없이 모두 우수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어 투자선호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지표는 시장지위로 판단한다. 유실적회원수, 카드자산 규모, 취급실적, 자기자본 규모 등의 판단 기준으로 시장지위를 따져볼 때, AA+등급에서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카드 순으로, AA등급에서는 롯데, 우리, 하나SK카드 순으로 선호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9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2014년 순이익 전월 대비 3.8% 하향

### ■ 삼성전자 실적 하향의 여파로 2014년 예상 순이익 하락

당사 유니버스 종목의 2014년 예상 순이익은 82.0조원이다. 담당자 변경으로 추정치가 갱신된 업종(석유정제, 화학, 미디어/광고)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전월 대비 순이익 하향 폭은 3.8% 수준이다. 이익 하향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 추가 하향(약 2.9조원)에 기인했다.

### ■ 통신서비스, 전자부품 업종 순이익 상향 / 통신장비, 반도체 업종 순이익 하향

9월에는 통신서비스 업종의 2014년 예상이익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로 7.9% 상향됐다. 전자부품 업종은 휴대폰/TV용 부품의 수출 개선 및 점유율 상승으로 LG이노텍의 이익이 상향되며 4.7% 높아졌다. 한편 반도체 업종은 M/S 회복을 위한 중저가폰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의 수익성 하락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11.4% 하향돼 전월대비 9.8% 낮아졌다. 통신장비/부품 업종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5 판매부진,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 대면적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6 출시 등의 여파로 예상이익이 24.6% 하향됐다.

### ■ 12개월 예상 PER은 10.2배, PBR은 0.98배

2014년 9월 26일 종가(KOSPI 2,031.64) 기준 12개월 예상 PER은 10.2배, 12개월 예상 PBR은 0.98배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9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정치불안 확대 및 해외자금 유출로 인니 급락

- ▶ 상해종합지수는 정책기대감 지속되며 나흘 연속 강세 랠리
- ▶ 홍콩H지수는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 본토 금융불안 우려에 0.5% 하락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정치적 불안, 해외자금 유출로 1.3% 급락
- ▶ VN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지속되며 약보합으로 마감

상해종합지수 강보합  
농업, 요식업, 영화방송,  
건설자재 등 업종 강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1% 올라 나흘 연속 반등하며 종가기준으로 연중 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하락 출발후 아주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는 박스권장세가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1,482억위안으로 전날대비 400억위안 가까이 줄었다. 중국정부가 장강경제벨트 건설정책을 발표했고 30개 정도의 공항신설 수요가 언급돼 경기부양 기대심리를 뒷받침했다. 은행기관들이 첫 주택에 30% 할인금리 적용 루머를 부인했으나 중앙은행 관계자가 모기지대출 규제 완화 설을 공식 부인하지 않아 부동산업종도 강세로 마감했다. 다만 최근의 랠리지속 부담과 2,350p선의 저항압력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업종별로는 농업(4.5%), 요식업(2.7%), 영화방송(2.3%), 건설자재(1.6%), 통신서비스(1.3%), 철강(1.1%), 전력(1.0%), 의류(0.8%), 제약(0.7%), 유통(0.7%), 건축(0.5%), 헬스케어(0.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하드웨어(-1.1%), 금융신탁(-0.9%), 석유(-0.3%), 철도(-0.2%), 환경보호(-0.2%) 등의 업종들은 약세였다.

홍콩H지수 0.5% 하락  
석탄, 석유 등 경기민감주  
약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0.5% 하락해 이틀 연속 약세였다. 지정학적 마찰에 따른 해외증시 급락에 동조하며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 후 장중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노무라 등을 비롯한 글로벌IB들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홍콩증시에 큰 부담을 실어줬다. 4분기 채무만기도래 집중과 디폴트 현상 재현에 대한 부담도 부각되며 은행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 석탄, 석유, 시멘트, 비철금속 등 경기민감주들이 대부분 하락했다. 반면 후강통 실시기대로 증권주들은 오름세로 마감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1.3% 반  
락, 소비재, 산업재, 은행,  
자동차 등 약세

###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1.3% 하락했다. 직전일의 상승 분을 모두 반납하며 5,200선을 다시 하회했다.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접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정치불안 우려가 고조됐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연속 큰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여 해외 자금 유출도 증가했다. 은행,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하루 만에 반락, 은행, 음식료, 부동산 등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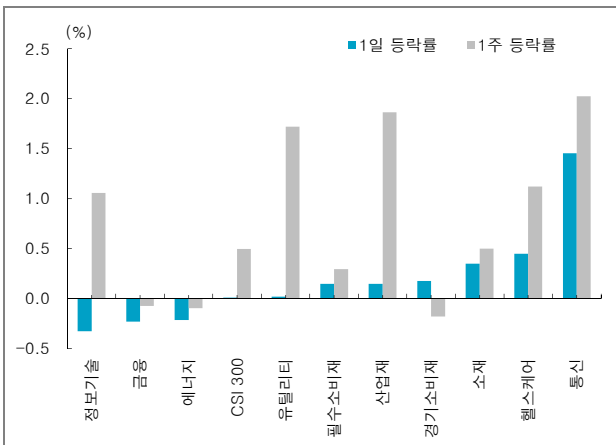
VN지수는 하루 만에 반락했다. 장중 강세를 이어가며 6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마감 직전에 매물출회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결국 0.02%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은행, 음식료, 부동산 등 관련 일부 대형주가 약세였다. 반면 운송, 증권, 보험, 가스, 전력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국무원, 장강경제벨트 발전에 대한 정책의견 발표, 7가지 주요 임무 제기 외환관리국, 홍콩의 2,700억위안 RQFII 한도 거의 소진, 한도 추가 증액 연구 중 은감회, 8월 말 은행업 총자산규모 162.7조위안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
베트남	투자계획부, 1~9월 FDI 등록액 111.7억달러로 전년동기비 25.5% 감소
베트남	ANZ, 9월 소비자신뢰지수 135 (8월 135.5)
태국	9월 19일까지 외환보유고 1,635억달러 (8월말 1,675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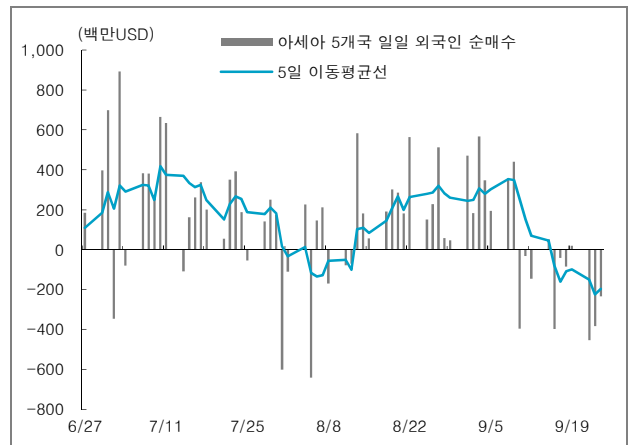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9/26(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47.72	0.11	0.78	5.89	10.95
홍콩 H	10,584.29	-0.52	-1.85	-3.46	-2.14
중국 차스닥	1,511.36	0.20	0.82	6.10	15.86
인도 SENSEX	26,387.14	-0.31	-2.60	-0.94	24.64
인도네시아 JCI	5,132.56	-1.32	-1.82	-0.08	20.08
태국 SET	1,596.26	0.27	0.72	2.22	22.91
베트남 VN	604.98	-0.02	-1.35	-4.97	19.89
MSCI 이머징마켓	1,025.63	-0.93	-2.68	-5.72	2.29

주: 26일 오후 6시 14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코스닥,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 구도를 지속

- 미국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다우지수가 17,000선을 이탈하는 등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이에 따른 여파로 2,020P선을 밀돌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초반 순매도를 보였던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섬에 따라 낙폭을 줄이며 2,031P로 마감.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외국인외의 매수세가 맞서며 장막판 반등에 성공, 577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금속 외장재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KH바텍이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3분기 실적 호조 및 일본 시장 진출 기대감에 아프리카TV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신신경과 의약 분야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환인제약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의 유효기간 연장건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파미셀이 8% 이상 급등. 또한, 중국의 콘텐츠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팬엔터테인먼트, SM C&C 등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경쟁사 애플의 신제품 결함 소식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2% 이상 강세를 보임. 반면, 애플에 부품을 공급 중인 LG이노텍, 인터플렉스, 이라이콤은 약세를 보였으며, 대한항공은 지분을 보유한 채코항공의 파업 우려감에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b>KH바텍(060720)</b> <b>▶28900(+3.96%)</b>	<b>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b> - 스마트폰용 금속 외장재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삼성전자가 하반기 신제품에 메탈 외장재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 - 동사는 국내에서는 메탈 외장재 생산 경험이 있는 유일한 기업이며, 삼성전자 등 고객사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단가인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b>아프리카TV(067160)</b> <b>▶32,750(+5.65%)</b>	<b>일본 진출 및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b> - 일본 아프리카TV가 지난 3월 PC버전 베타서비스에 이어 이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견조한 오름세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47억원, 20억원으로 각각 전년비 14.5%, 54.9% 증가 기대
<b>환인제약(016580)</b> <b>▶19,750(+6.76%)</b>	<b>정신신경과 의약 분야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b> - 최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며 한국인 자살률이 10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 이에 따라 정신신경과 의약 분야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국내 우울증 환자수는 2011년 기준 5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신신경과 치료제 전문 제약사인 동사의 수혜 기대
<b>파미셀(005690)</b> <b>▶4,295(+8.19%)</b>	<b>‘셀그램’ 유효기간 연장건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세</b> -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AMI(Cellgram-AMI)’의 유효기간 연장건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세 - 기존 치료제의 유효시간은 18시간이었으나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36시간까지 연장돼 국내 소비자 및 의료관광객에게 치료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며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자산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을 제출한 것과 이슬람국가(IS)를 둘러싼 불안한 중동 정세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다우지수가 17,000P선을 하회하는 등 약세를 보임
-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7거래일 연속 지속된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며 하락을 주도, 코스피는 2,031P로 한주를 마감.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엇갈리며 577P로 마감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삼영전자	13,750	3.0	건강관리	서비스업	녹십자홀딩스	19,950	9.0
	IT	서비스업	신세계 I&C	110,500	9.4	건강관리	의약품	종근당바이오	24,300	8.2
	금융	증권	메리츠증권증권	3,990	8.1	건강관리	의약품	환인제약	19,750	9.1
	소재	유통업	고려포리머	890	37.3	유틸리티	전기가스	서울가스	146,500	6.5
	소재	화학	동방아그로	7,600	13.8	유틸리티	유통업	SK가스	132,000	11.4
	소재	종이목재	아세아제지	27,500	8.5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대상홀딩스	22,300	7.7
	소재	서비스업	아세아	168,500	17.0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삼양홀딩스	91,200	4.1
	소재	서비스업	풍산홀딩스	48,300	6.7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농심홀딩스	124,500	5.1
	소재	화학	진양폴리	2,510	2.7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넥센	97,500	5.4
	소재	기계	삼화왕관	36,000	2.3	경기소비재	유통업	광주신세계	320,000	6.5
	소재	서비스업	진양홀딩스	5,130	5.7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BYC	303,000	7.6
	산업재	운수장비	한국항공우주	40,800	2.4	경기소비재	유통업	엠케이트렌드	16,400	9.0
	산업재	비금속	벽산	6,610	6.8	경기소비재	화학	아모레퍼시픽	2,355,000	1.7
	산업재	운수창고	KSS해운	15,900	2.9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아비스타	9,190	11.7
	산업재	운수창고	세방	21,100	1.4	경기소비재	유통업	힐라코리아	114,500	9.0
	산업재	서비스업	LG	76,600	7.0	경기소비재	화학	동일고무벨트	11,400	11.2
	산업재	유통업	모나미	4,700	35.4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인디에프	1,265	8.6
	산업재	운수창고	한진	42,750	12.4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방림	21,800	2.3
	에너지	유통업	키스톤글로벌	2,075	57.2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아모레G	1,135,000	3.7
	건강관리	의약품	삼진제약	23,200	5.9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대현	2,950	13.0
코스닥	IT	기계장비	네오티스	5,850	11.4	산업재	기계장비	수성	4,450	15.7
	IT	정보기기	이씨에스	5,500	7.2	산업재	소매	에이치에이엠 미디어	2,550	14.9
	IT	반도체	다원텍	2,930	14.2	산업재	의료정밀기기	코메론	6,990	16.1
	IT	IT부품	동일기연	13,600	24.8	건강관리	화학	네오팜	13,600	26.5
	IT	화학	디엔에프	20,000	13.3	건강관리	의료정밀기기	뷰웍스	36,000	4.2
	IT	반도체	OCI머티리얼즈	52,900	8.6	건강관리	의료정밀기기	오스템임플란트	40,700	6.5
	IT	컴퓨터서비스	슈프리마	28,400	10.3	경기소비재	소매	아이에스이커머스	3,360	100.0
	IT	IT부품	다원시스	13,850	5.3	경기소비재	도매	CJ프레시웨이	40,900	7.1
	IT	기계장비	제우스	20,300	7.7	경기소비재	기타제조	로만손	17,000	9.7
	IT	컴퓨터서비스	브리지텍	4,930	8.2	경기소비재	오락문화	대원미디어	8,950	8.0
	IT	소프트웨어	한국사이버결제	20,650	4.6	경기소비재	디지털컨텐츠	소리바다	5,290	29.5
	소재	비금속	동국알앤에스	1,660	1.2	경기소비재	도매	서울옥션	3,800	18.9
	소재	도매	원익큐브	3,785	38.6	경기소비재	화학	바이오랜드	24,900	12.7
	금융	사업지원	나이스디앤비	3,920	10.0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한국정보통신	10,500	37.4
	산업재	종합건설	동신건설	7,700	6.9					

주) 상기 종목들은 9월 26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 단기 유망종목: 태광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태광 (023160)	- 2012년 발생한 불량제품 보상 문제로 이후 2년간 수주,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설비증설 및 내부품질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메인 벤더의 지위를 회복 중 -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사들의 산업설비(정유/화학/발전 플랜트) 수주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했으며 호황기 수준의 수주 모멘텀 예상. 수주 모멘텀과 함께 제품 Mix 개선으로 2분기를 바닥으로 외형 성장세가 재개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3. 12A	311	35	29	1,151	14.4
	2014. 12F	272	23	17	652	25.5

- 편입 제외 종목: 솔루에타(기간경과로 제외 -3.0%)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풍산 (103140)	30,300 (-7.3)	32,700 (09/12)	- 3분기 연결 영업이익 64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00% 이상 증가 예상 - 구리가격의 안정화, 환율 안정, 해외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산부문의 장기 성장성, 동래공장 개발 가능성 등으로 자산가치 재조명 가능성
현대백화점 (069960)	164,500 (+1.5)	162,000 (09/02)	- 내수 부양책, 소비심리 개선, 객단가 상승, 이연소비 등을 감안할 때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점 매출액 증가율은 4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15년과 2016년 사이 총 6개의 신규 개점으로 인한 실질 영업면적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4.3%, 28.5%에 달해 향후 2년간 고성장세 예상 - 하반기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여타 유통주 대비 높은 성장 잠재력,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평화정공 (043370)	21,500 (-0.7)	21,540 (08/13)	- 전장관련 신제품들(Active hood, 자동닫김장치, Power trunk)에 대한 채택 차종 증가와 고객 베이스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예상 - 인도와 중국에 증설 중인 공장이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완공되면 현재 20% 수준인 현대/기아차 외 매출비중이 2년 내 30%까지 확대될 전망
삼성이엔씨 (065570)	9,120 (-1.0)	9,210 (08/06)	- 항해안전과 직결된 선박전자장비 전문업체로 국내 유일의 상장업체로,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법령규제 장벽이 중소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어선 감축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내수시장은 항해안전 관련 규제 강화, 마리나 활성화 등으로 회복/재성장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중장기적으로 e-내비게이션 도입, 기존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수혜 예상
에스원 (012750)	83,700 (+15.1)	72,700 (07/25)	-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 28% 예상 -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 삼성 에버랜드로부터의 건물사업 양수를 통한 외형 확대와 건물 에너지 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System: BEMS)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유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LG생활건강 외 5개 종목

- 신규:없음

- 제외: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생활건강 (051900)	489,000 (-2.2)	500,000 (08/13)	4,639	517	363	21,759	22.5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2분기 실적은 개선세로 전환, 장기적인 이익 개선 시그널 확인 -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음료사업은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예상 - 실적 부진, M&A 기대감 약화 등과 관련한 주가 선반영 과정은 일단락, 내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제일기획 (030000)	22,800 (+4.1)	21,900 (06/26)	3,228	162	126	1,096	20.8
			- 국내 광고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중국 광고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삼성전자의 신홍국 마케팅 확대, M&A를 통한 광고 대행 능력 강화, 비계열사 광고주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성장성 대비 저평가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NAVER (035420)	821,000 (+4.3)	787,000 (06/23)	2,725	791	575	19,289	42.6
			- 라인 가입자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 모델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페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SDI (006400)	130,000 (-14.8)	152,500 (03/14)	5,038	136	310	6,896	18.9
			- BMW의 신제품 출시 및 Global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2차전지 부문의 고성장 기대 유효 - 소형 전지는 Mobile 신제품 출시 및 Tablet PC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제품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2차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PBR 0.9배) 재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185,000 (-8.9)	1,301,050 (02/17)	209,159	29,766	25,187	166,768	7.1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7				
SK텔레콤 (017670)	290,500 (+27.7)	227,500 (01/15)	17,632	1,904	1,731	24,401	11.9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특화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SDI, NAVER, LG생활건강의 발행주식유통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오리온(001800)

## 매수(유지)

목표가: 1,050,000원(유지)

종가(9/25): 897,000원

## 중국의 회복 2% 부족하지만

### ■ 3분기 중국 회복 가시화 예상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 5.4% 증가한 6,455억원(컨센서스 6,487억원)과 749억원(79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 5.1% 감소했던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반전한 것은 중국 판매 증가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안화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2분기 12%에서 3분기 현재 14~15%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과경기가 상반기대비 호전되고 있고 심양과 광저우의 신규 라인 가동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베트남은 경쟁 심화로, 러시아는 루블화 절하 영향으로 2분기와 유사하게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제과는 수입품과 PB(Private Brand)제품의 인기로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나 비용을 줄이고 있어 영업이익 감소 폭은 1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중국, 기회의 땅에는 경쟁이 존재해...

중국 제과시장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상반기 2%에서 최근 5%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기프팅 카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끝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장 경쟁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껌시장에 Cadbury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비스킷에서는 Kraft의 전통 브랜드 마케팅이 강하다. 스낵에서는 PepsiCo 이외에 아시아 경쟁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파이류에서도 로컬 회사들이 꾸준히 진입하고 있다. 베트남도 2분기부터 PepsiCo가 스낵 마케팅을 강화해 동사의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 ■ 중국 성공 검증된 기업으로서 주가 지표는 낮은 편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의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국내 시장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을 반영해 2015년 이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5~8% 수준으로 하향한다. 하지만 DCF 평가의 기간 경과 효과와 최근 공시된 OSI(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한국 스낵 생산법인) 합병으로 인한 비용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주가 1,050,000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단기에 영업 모델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의 강한 입지를 고려할 때 valuation 상 상향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동사의 2014년과 2015년 PER은 29.9배와 26.8배로 높은 성장성(낮은 침투율과 강한 브랜드력에 기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peer 그룹과 유사하다. 최근 중국 판매 증가 기대로 주가가 급등한 한국 화장품회사의 2014년과 2015년 PER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각각 40배, 30배 이상임을 고려할 때, valuation 매력은 더욱 커 보인다. 오리온은 내수 업체 중 중국의 이익 기여도가 가장 크며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됐다는 측면에서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2,368	264	152	39,952	111.3	389	27.5	18.4	6.5	16.3	0.3
2013A	2,485	259	146	27,698	(30.7)	398	34.3	16.0	5.0	13.8	0.3
2014F	2,502	279	158	30,002	8.3	401	29.9	15.1	4.2	13.2	0.3
2015F	2,482	305	176	33,500	11.7	440	26.8	13.8	3.7	13.1	0.3
2016F	2,694	342	198	37,611	12.3	490	23.8	12.4	3.3	13.1	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9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현대차(005380)

<b>매수(유지)</b>
목표가: 250,000원(유지)
종가(9/26): 187,000원

## 한전부지 인수 관련 IR 간담회 후기

### ■ 인수 후 애널리스트 대상 첫 미팅 개최

금일 현대가 기아(000270, 매수/TP 68,000원), 모비스(012330, 매수/TP 320,000원)와 함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전부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날 10.55조원에 한전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가 시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주가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50,000원(12개월 forward PER 8배, 과거 평균을 10% 할인)을 유지한다. 단기적으로는 배당 증가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며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현대차 제2우선주가 매력적으로 판단된다. 3사는 오늘 최근의 배당 증가세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지 매입과 관련 차입을 고려하지 않으며 capex 증설과 R&D 투자 강화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입찰가를 시장 예상치의 3배로 제시한 이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최근 일어난 인수전을 살펴보면 입찰가는 감정가의 2~3배에서 정해졌다. 한전부지 입찰도 최고가에 배정되는 일반경쟁방식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또한 부지의 높은 투자 가치와 그룹의 투자여력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당 부지는 세가지로 구분해 개발할 예정이다. 1)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2) 컨벤션 센터와 호텔로 구성된 MICE, 3) 백화점, 쇼핑센터, K-pop 엔터테인먼트 센터, 자동차 테마파크로 구성된 문화/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 ■ 투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 모비스, 기아는 올해 각각 5,800억원, 2,600억원, 2,10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15년에는 각각 5.22조원, 2.37조원, 1.9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부담율은 현대 55%, 모비스 25%, 기아가 20%이다. 총 투자액은 15조원으로 나머지 4.45조원은 3년간 서울시와 협상 이후 5년동안 30여개 계열사들이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다.

### ■ 양재사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양재사옥은 R&D 거점으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우수한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은 3,000명의 연구원을 더 고용해 20년까지 R&D 인력을 1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부지 인수가 그룹의 R&D 경쟁력을 강화시켜 연간 천만대를 생산하는 글로벌 탑 완성차업체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84,470	8,441	8,567	30,008	11.6	10,965	6.2	6.9	1.1	20.5	1.0
2013A	87,308	8,315	8,542	29,921	(0.3)	10,867	6.2	6.9	0.9	17.2	1.0
2014F	89,250	8,219	8,356	29,269	(2.2)	10,769	6.4	6.7	0.9	14.8	1.1
2015F	94,979	8,924	9,039	31,662	8.2	11,584	5.9	6.5	0.8	14.3	1.1
2016F	101,145	9,752	9,870	34,573	9.2	12,546	5.4	5.8	0.7	13.7	1.1

\*상기 보고서는 2014년 9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19(금)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53.82	2,039.27	2,028.91	2,035.64	2,034.11	2,031.64	
	등락폭	6.08	-14.55	-10.36	6.73	-1.53	-2.47	
	등락종목	상승(상한)	531(4)	306(3)	299(4)	501(6)	357(4)	305(2)
		하락(하한)	269(0)	495(2)	508(1)	308(0)	452(2)	499(0)
	ADR	99.98	98.93	98.65	99.40	97.85	93.25	
	이격도	10 일	100.30	99.65	99.28	99.68	99.60	99.53
		20 일	99.90	99.27	98.81	99.19	99.18	99.14
	투자심리	50	50	4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98	324	428	333	325	306	
	거래대금 (십억 원)	5,083	3,546	4,684	4,454	4,767	3,770	
코스닥	코스닥지수	581.38	577.35	575.56	580.42	577.48	577.66	
	등락폭	4.41	-4.03	-1.79	4.86	-2.94	0.18	
	등락종목	상승(상한)	531(7)	306(7)	299(3)	501(9)	357(6)	418(11)
		하락(하한)	269(0)	495(0)	508(0)	308(1)	452(5)	510(1)
	ADR	96.80	95.16	92.95	93.16	94.47	92.45	
	이격도	10 일	101.49	100.68	100.25	100.96	100.38	100.29
		20 일	102.04	101.19	100.77	101.49	100.86	100.81
	투자심리	50	50	4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74	385	370	370	434	393	
	거래대금 (십억 원)	2,249	2,248	2,525	2,324	2,649	2,236	

##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39.1	992.4	914.7	160.4	138.8	260.9	67.7	44.1	242.915	46.8
	매도	1,834.7	1,026.7	881.3	163.3	124.8	203.6	58.7	36.8	294.0	50.2
	순매수	4.4	-34.3	33.4	-3.0	14.0	57.3	8.9	7.3	-51.1	-3.5
	9월 누계	773.8	-878.9	169.7	-72.0	-80.6	492.0	-16.6	-360.8	207.7	-64.6
	14년 누계	-159.9	7,249.5	-5,736.4	-3,172.0	605.3	-3,156.8	-484.1	-1,993.3	2,464.5	-1,353.3
코스닥	매수	1,997.3	131.9	118.3	24.6	11.0	39.7	7.7	5.3	30.0	16.0
	매도	2,010.8	109.1	125.1	25.7	15.5	30.4	15.3	3.8	34.4	18.4
	순매수	-13.5	22.7	-6.8	-1.1	-4.5	9.2	-7.6	1.5	-4.3	-2.4
	9월 누계	-0.4	46.5	1.4	-17.4	-5.6	110.4	-2.9	-5.6	-77.5	-47.5
	14년 누계	349.2	752.5	-128.8	-5.2	140.7	-294.1	-68.4	-40.0	143.2	-972.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2,498	건설업	-10,877
통신업	9,842	금융업	-7,699
유통업	9,205	증권	-533
KODEX 200	90,230	삼성전자	-10,541
삼성물산	8,702	대림산업	-7,010
SK텔레콤	7,833	LG화학	-6,501
NAVER	7,526	현대건설	-5,366
삼성전기	7,221	하나금융지주	-5,295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3,337	운수장비	-23,001
통신업	9,933	금융업	-21,363
제조업	6,572	화학	-14,493
SK텔레콤	8,887	현대차	-21,261
SK하이닉스	7,151	삼성전자	-19,010
NAVER	7,084	우리금융	-7,094
KT&G	5,972	하나금융지주	-6,844
LG디스플레이	5,433	LG화학	-6,14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730	전기,전자	-1,890
화학	3,480	철강및금속	-1,839
유통업	3,205	운수창고	-1,657
KODEX 레버리지	4,070	삼성전자	-2,601
KODEX 200	2,000	KODEX 인버스	-2,532
SK C&C	1,543	POSCO	-2,418
롯데쇼핑	1,253	팬오션	-1,173
NAVER	1,081	LS	-1,05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2,570	화학	-7,711
유통업	8,445	건설업	-5,419
서비스업	5,364	운수장비	-4,800
삼성화재	13,273	대림산업	-4,673
KODEX 200	8,185	하나금융지주	-3,952
SK하이닉스	5,473	삼성전자	-3,222
NAVER	5,316	LG화학	-3,093
KB금융	4,456	현대차	-2,753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56,473	금융업	-44,848
통신업	26,035	운수장비	-23,621
유통업	23,603	전기,전자	-23,566
SK하이닉스	26,495	삼성전자	-59,749
NAVER	25,230	KODEX 레버리지	-30,028
SK텔레콤	23,962	현대차	-21,707
삼성물산	20,035	하나금융지주	-19,026
LG디스플레이	16,918	대림산업	-15,148
삼성전기	13,421	LG화학	-14,721
삼성화재	13,043	신한지주	-14,227
아모레퍼시픽	9,843	SK이노베이션	-10,931
LG	6,885	세방전지	-9,208
SK C&C	6,016	현대건설	-8,780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3,599	서비스업	-64,971
운수창고	7,427	통신업	-27,214
유통업	4,005	운수장비	-24,508
삼성전자	103,360	SK텔레콤	-25,204
SK하이닉스	22,658	NAVER	-19,924
LG화학	15,052	KB금융	-18,334
한진해운	10,970	삼성화재	-13,592
하나금융지주	10,213	기아차	-13,210
세방전지	8,918	한진해운홀딩스	-11,277
SK이노베이션	7,929	SK C&C	-9,114
호텔신라	4,635	KCC	-7,432
현대건설	4,171	기업은행	-7,194
POSCO	4,045	아모레G	-7,07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소프트웨어	2,804	방송서비스	-1,430
의료,정밀기기	2,361	금속	-618
오락,문화	1,718	인터넷	-581
파라다이스	1,748	메디톡스	-2,568
아프리카TV	1,557	CJ E&M	-1,464
삼천당제약	1,417	CJ오쇼핑	-1,409
인터파크	1,312	게임빌	-1,389
심텍	1,305	솔브레인	-1,142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반도체	718	출판,매체복제	-735
운송장비,부품	319	음식료,담배	-252
IT부품	306	제약	-162
심텍	384	로엔	-736
컴투스	343	CJ E&M	-253
평화정공	303	매일유업	-204
에스에프에이	257	동국제약	-201
KH바텍	250	뷰웁스	-102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6,322	출판,매체복제	-7,576
오락,문화	2,447	IT부품	-5,526
의료,정밀기기	2,365	운송장비,부품	-1,823
KT뮤직	2,665	로엔	-7,077
파라다이스	2,578	KH바텍	-3,535
컴투스	2,474	서울반도체	-3,219
에스에프에이	2,201	CJ E&M	-3,115
삼천당제약	1,835	메디톡스	-2,759
심텍	1,827	솔브레인	-1,861
인터파크	1,827	성우하이텍	-1,759
메디포스트	1,525	선데이토즈	-1,415
이오테크닉스	1,514	엘엠에스	-1,196
게임빌	1,500	동국S&C	-984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방송서비스	1,406	출판,매체복제	-3,559
디지털컨텐츠	1,379	반도체	-2,628
제약	908	운송장비,부품	-986
KT뮤직	1,291	로엔	-3,870
CJ오쇼핑	1,262	서울반도체	-2,299
에스에프에이	645	KH바텍	-981
포스코 ICT	423	성우하이텍	-972
에스엠	311	다음	-927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제약	6,434	오락,문화	-9,065
금융서비스	5,812	인터넷	-7,152
IT부품	5,724	반도체	-5,066
선데이토즈	5,863	파라다이스	-8,872
KH바텍	4,979	다음	-7,575
셀트리온	3,202	서울반도체	-6,697
메디톡스	3,102	컴투스	-2,698
CJ오쇼핑	2,870	CJ E&M	-2,315
뷰웁스	2,779	에스에프에이	-1,478
로엔	2,565	게임빌	-952
오스템임플란트	2,071	인바디	-661
아프리카TV	1,938	한국사이버결제	-659
삼성엘엠에스	1,492	NICE평가정보	-586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제약	6,434	오락,문화	-9,065
금융서비스	5,812	인터넷	-7,152
IT부품	5,724	반도체	-5,066
선데이토즈	5,863	파라다이스	-8,872
KH바텍	4,979	다음	-7,575
셀트리온	3,202	서울반도체	-6,697
메디톡스	3,102	컴투스	-2,698
CJ오쇼핑	2,870	CJ E&M	-2,315
뷰웁스	2,779	에스에프에이	-1,478
로엔	2,565	게임빌	-952
오스템임플란트	2,071	인바디	-661
아프리카TV	1,938	한국사이버결제	-659
삼성엘엠에스	1,492	NICE평가정보	-586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도레이케미칼	31 일	대우인터내셔널	19 일
SK텔레콤	29 일	고려제강	14 일
LG	22 일	금호전기	9 일
한국금융지주	19 일	풍산	9 일
롯데칠성	15 일	LG화학	8 일
대한제강	14 일	경방	7 일
삼성화재	11 일	녹십자	7 일
한국셀석유	11 일	ARIRANG 200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에프에이	17 일	GS홈쇼핑	12 일
메가스터디	17 일	성우하이텍	10 일
평화정공	11 일	KTH	10 일
메디포스트	9 일	오스템임플란트	6 일
SBS콘텐츠허브	8 일	크루셜텍	6 일
이트레이드증권	5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에이블씨엔씨	5 일	동양시멘트	5 일
휴맥스	5 일	실리콘웍스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AVER	210,091	삼성전자	294,091
SK하이닉스	141,421	LG화학	49,833
삼성물산	72,565	하나금융지주	28,000
SK텔레콤	71,447	한국전력	24,697
아모레퍼시픽	57,555	OCI	17,091
LG디스플레이	55,564	CJ제일제당	15,863
KT&G	52,170	휠라코리아	14,151
LG	42,980	현대차우	13,435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36,744	GS홈쇼핑	18,225
다음	16,387	KH바텍	7,940
SK브로드밴드	11,399	성우하이텍	7,552
인터파크	9,620	오스템임플란트	7,550
게임빌	8,135	인바디	5,859
에스에프에이	6,152	아프리카TV	4,849
셀바이오텍	5,584	SK브로드밴드	3,603
KG이니시스	4,917	셀바이오텍	2,60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23,603	4,005	27,609
의약품	622	3,949	4,571
종이, 목재	1,189	729	1,917
SK하이닉스	26,495	22,658	49,153
삼성물산	20,035	2,456	22,492
LG디스플레이	16,918	2,346	19,264
아모레퍼시픽	9,843	1,917	11,760
한진해운	108	10,970	11,079
호텔신라	2,797	4,635	7,433
OCI	1,835	3,093	4,928
LG생명과학	3,029	1,005	4,034
CJ CGV	1,832	1,389	3,220
한진	1,843	980	2,822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료,정밀기기	2,365	4,224	6,588
방송서비스	979	4,254	5,233
소프트웨어	894	2,098	2,992
CJ오쇼핑	1,256	2,870	4,126
오스템임플란트	976	2,071	3,047
아프리카TV	1,085	1,938	3,023
인터파크	1,827	610	2,437
삼성엘엔에스	387	1,492	1,879
OCI머티리얼즈	431	1,369	1,799
크루셜텍	173	814	987
셀바이오텍	791	56	847
에이블씨엔씨	576	244	819
MPK	603	214	81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20 일	현대백화점	18 일
TIGER 금은선물(H)	19 일	한진중공업	18 일
삼성정밀화학	13 일	고려아연	16 일
KODEX 골드선물(H)	13 일	SK C&C	16 일
아이에스동서	10 일	두산	15 일
세종공업	10 일	SK텔레콤	15 일
KOSEF 블루칩	10 일	LG	12 일
TIGER 현대차그룹+	10 일	신세계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16 일	평화정공	7 일
서울반도체	10 일	에스에프에이	6 일
STS반도체	7 일	KCC건설	5 일
코미팜	6 일	파라다이스	5 일
인터플렉스	5 일	DMS	5 일
CJ E&M	5 일	CJ E&M	5 일
성우하이텍	4 일	포스코엠텍	4 일
동서	4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26,541	NAVER	-136,508
KODEX 레버리지	-169,905	SK텔레콤	-86,338
삼성SDI	-77,405	현대차	-68,958
현대차	-67,050	아모레퍼시픽	-67,108
SK이노베이션	-41,575	KT&G	-66,071
하나금융지주	-37,029	기아차	-64,193
LG화학	-34,397	SK하이닉스	-53,523
롯데케미칼	-22,430	SK C&C	-49,703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21,020	파라다이스	-24,434
CJ E&M	-20,774	다음	-11,642
KH바텍	-14,006	KT뮤직	-10,078
선데이토즈	-12,047	셀트리온	-8,473
로엔	-9,601	한국정보통신	-7,164
서울반도체	-8,725	CJ오쇼핑	-6,058
성우하이텍	-5,798	게임빌	-5,917
한글과컴퓨터	-3,370	서울반도체	-4,116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44,848		-9,488		-54,336	
운수장비		-23,621		-24,508		-48,130	
건설업		-21,001		-4,602		-25,603	
현대차		-21,707		-7,041		-28,748	
KB금융		-3,910		-18,334		-22,244	
신한지주		-14,227		-3,276		-17,503	
대림산업		-15,148		-249		-15,396	
삼성증권		-7,391		-5,237		-12,628	
삼성SDI		-6,093		-6,292		-12,385	
LS		-4,805		-2,126		-6,931	
롯데케미칼		-2,353		-3,635		-5,988	
SK케미칼		-3,217		-1,452		-4,668	
대한항공		-1,866		-1,941		-3,806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68		-7,152		-7,221
전문기술			-913		-1,314		-2,228
숙박,음식			0		0		0
서울반도체			-3,219		-6,697		-9,916
다음			-223		-7,575		-7,798
CJ E&M			-3,115		-2,315		-5,430
엘엠에스			-1,196		-36		-1,232
한국사이버결제			-515		-659		-1,174
에림당			-568		-282		-850
인바디			-139		-661		-799
동서			-262		-499		-761
차바이오텍			-275		-418		-693
코스온			-534		-85		-61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대우조선해양	629	13,386	
현대중공업	55	7,716	
SK C&C	23	5,578	
한미약품	47	4,306	
POSCO	13	4,204	
LG화학	15	4,190	
SK하이닉스	77	3,440	
삼성중공업	129	3,27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KH바텍	99	2,751	
차이나그레이트	752	2,272	
선데이토즈	99	1,917	
KT뮤직	222	1,839	
컴투스	10	1,602	
다음	10	1,599	
로엔	35	1,570	
게임빌	11	1,299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326	5,000,496
POSCO	4,867	1,608,554
SK하이닉스	24,896	1,110,381
LG전자	14,828	1,018,681
신한지주	17,674	903,134
NAVER	1,064	859,771
OCI	5,788	810,321
KODEX 200	29,456	761,43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8,053	840,372
CJ E&M	790	551,342
다음	2,914	480,820
파라다이스	8,883	311,800
위메이드	1,129	246,144
서울반도체	7,701	206,012
컴투스	979	154,597
파트론	8,164	86,135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종이, 목재	3,334	금융업	-790
서비스업	1,834	운수장비	-779
유통업	1,305	의료정밀	-538
한솔테크닉스	1,645	SK하이닉스	-2,151
웅진씽크빅	1,628	금호타이어	-1,688
한솔홈데코	1,587	삼성중공업	-1,274
대영포장	1,584	기아차	-922
한화케미칼	1,516	우리종금	-919
대우조선해양	1,474	우리금융	-792
KODEX 200	1,273	삼성엔지니어링	-699
LG전자	1,151	미래산업	-515
한진해운	1,112	LG디스플레이	-501
삼익약기	653	아시아나항공	-43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미분류	3,067	금융서비스	-494
화학	1,908	통신서비스	-273
오락, 문화	1,254	소프트웨어	-206
차이나그레이트	3,109	대아티아이	-544
파라다이스	1,372	선데이토즈	-468
한진피앤씨	900	SK브로드밴드	-395
티케이케미칼	613	인프라웨어	-270
KT뮤직	470	한글과컴퓨터	-208
파트론	440	셀루메드	-208
지엔코	416	와이지-원	-198
서울반도체	410	STS반도체	-182
KT서브마린	379	유니테스트	-175
셀트리온	312	하이소닉	-112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외국인	7,249.5	-878.9	-685.9	-240.5	-258.0	-27.0	-126.1	-34.3
기관계	-5,736.4	169.7	598.3	32.4	285.3	129.8	117.5	33.4
(투신)	-3,156.8	492.0	303.1	32.9	110.6	52.1	50.2	57.3
(연기금)	3,941.7	272.2	-42.6	-12.1	-50.5	56.7	6.7	-43.4
(은행)	-1,993.3	-360.8	-25.4	-2.9	-3.3	-23.2	-3.3	7.3
(보험)	605.3	-80.6	-38.3	11.3	-18.1	-28.6	-16.9	14.0
개인	-159.9	773.8	59.2	195.5	-33.3	-110.7	3.5	4.4
기타	-1,353.3	-64.6	28.4	12.6	6.0	8.0	5.1	-3.5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9/19(금)	9/22(월)	9/23(화)	9/24(수)	9/25(목)
KOSPI	1,825.7	1,997.1	2,011.3	2,053.8	2,039.3	2,028.9	2,035.6	2,034.1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5,004.6	14,917.1	15,066.1	15,251.1	14,737.7
(증감액)	1,996.5	3,611.7	334.1	136.0	-87.5	149.0	185.0	-513.4
(회전율)	34.2	26.7	29.9	48.9	38.8	47.9	44.4	50.3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5.6	85.0	202.6	315.2	-494.1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268.9	5,328.1	5,357.0	5,381.3	5,390.2
미수금	1,877.0	1,241.0	929.0	113.5	142.9	142.0	222.7	164.9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19(금)	9/22(월)	9/23(화)	9/24(수)	9/25(목)
전체 주식형	76,792	-7,978	39	131	-13	253	59	180
(ex. ETF)		-5,699	704	67	-49	127	2	77
국내 주식형	59,566	-5,880	198	143	4	264	99	167
(ex. ETF)		-3,600	863	79	-32	138	42	64
해외 주식형	17,225	-2,098	-160	-12	-17	-11	-40	13
(ex. ETF)		-2,099	-160	-12	-17	-11	-40	13
주식 혼합형	10,102	59	54	21	-16	46	-15	-39
채권 혼합형	25,145	1,204	798	27	20	80	88	-33
채권형	64,559	3,954	481	-3	-72	-15	418	346
MMF	88,063	20,727	2,464	-626	-1,649	-168	-1,400	-1,94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한 국	7,221	-826	-2,169	-231	-247	-26	-121	-22
대 만	10,728	-1,287	-1,522	-498	-215	-187	-194	-
인 도	13,910	999	-427	11	-157	-113	-	-
인도네시아	4,468	-380	-169	2	-50	-37	-46	-
태국	-17	728	-38	21	18	143	74	-
남아공	2,360	-213	-295	-59	-167	-	-63	-
필리핀	1,259	-52	-6	2	-13	9	7	-11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9/19(금)	9/22(월)	9/23(화)	9/24(수)	9/25(목)	9/26(금)
회사채 (AA-)	3.29	2.76	2.74	2.78	2.72	2.71	2.70
회사채 (BBB-)	8.98	8.51	8.49	8.48	8.47	8.46	8.45
국고채 (3년)	2.86	2.37	2.35	2.35	2.34	2.33	2.31
국고채 (5년)	3.23	2.64	2.61	2.60	2.58	2.56	2.54
국고채 (10년)	3.58	3.03	2.99	2.98	2.97	2.95	2.92
미 국채 (10년)	2.97	2.57	2.56	2.53	2.56	2.50	-
일 국채 (10년)	0.74	0.56	0.54	0.54	0.53	0.53	-
원/달러	1,055.40	1,044.60	1,040.70	1,040.00	1,039.90	1,042.60	1,044.40
원/엔	1,003.99	960.65	955.47	955.53	955.33	955.19	956.85
엔/달러	105.12	108.74	108.92	108.84	108.80	109.15	109.15
달러/유로	1.38	1.29	1.28	1.29	1.28	1.27	1.27
DDR3 1Gb (1333MHz)	1.37	1.42	1.42	1.42	1.42	1.42	-
DDR3 2Gb (1333MHz)	2.54	2.24	2.24	2.24	2.24	2.24	-
NAND Flash 16Gb (MLC)	3.43	2.40	2.40	2.40	2.40	2.40	-
CRB 지수	280.17	280.07	278.33	278.47	281.06	279.84	-
LME 지수	3,182.9	3,164.8	3,119.9	3,119.6	3,136.6	3,109.5	-
BDI	2,277	1,075	1,077	1,073	1,056	1,038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92.41	91.52	91.56	92.80	92.53	-
금 (달러/온스)	1,189.10	1,219.75	1,213.50	1,222.00	1,217.25	1,213.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美> Dudley 연준이사 연설 8월 기존주택매매 (505만, 520만, 514만)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Powell 연준이사 연설 George 연준이사 연설 유럽> 9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0.5, 50.6, 50.7) 中> <b>9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50.5, 50.0, 50.2)</b>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8월 신규주택매매 (50.4만, 43.0만, 42.7만)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8월 내구재 주문 (-18.2%, -18.0%, 22.5%)	美> <b>2Q GDP 연간화 QoQ (n/a, 4.6%, 4.2%)</b> 2Q 개인소비 (n/a, 3.0%, 2.5%) 9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85.0, 84.6) 日>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3%, 3.3%, 3.4%)
29	30	10/1	2	3
韓> 8월 경상수지 (달러) (n/a, n/a, 79억)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8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0.5%, 3.3%)	韓> Powell 연준이사 연설 8월 산업생산 SA MoM (n/a, 0.1%, 1.1%) 美> 7월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YoY (n/a, 7.40%, 8.07%) 9월 시카고 구매자협회지수 (n/a, 61.5, 64.3) 9월 소비자자기대지수 (n/a, 92.4, 92.4) 유럽> 9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3%, 0.4%) 中> <b>9월 HSBC 제조업 PMI (n/a, 50.5, 50.5)</b> 日> 8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0.2%, 0.4%)  실적발표> 美 월그린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5%, 1.4%) 9월 HSBC 제조업 PMI (n/a, n/a, 50.3) 9월 수출 YoY (n/a, 6.7%, -0.2%) 9월 수입 YoY (n/a, 6.0%, 3.1%) 中> <b>9월 관방 제조업 PMI (n/a, 51.0, 51.1)</b> 美> 9월 ADP 취업자 변동 (n/a, 20.4만, 20.4만) 9월 ISM 제조업지수 (n/a, 58.5, 59.0)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8월 제조업수주 (n/a, -9.0%, 10.5%) 유럽> <b>ECB 금리 결정 (n/a, 0.050%, 0.050%)</b>	美> 9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21.0만, 14.2만) <b>9월 실업률 (n/a, 6.1%, 6.1%)</b> 8월 무역수지 (달러) (n/a, -407억, -405억) 유럽> 8월 소매판매 MoM (n/a, n/a, -0.4%)
6	7	8	9	10
독일> 8월 공장수주 MoM	日> 일본중앙은행 본원통화목표 8월 예비 선행지수 독일> 8월 산업생산 SA MoM	日> 9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8월 경상수지 美> 9월 FOMC 의사록 공개	日> 8월 기계수주 MoM	中> 9월 신규 위안화 대출(~15일) 美> 9월 재정수지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